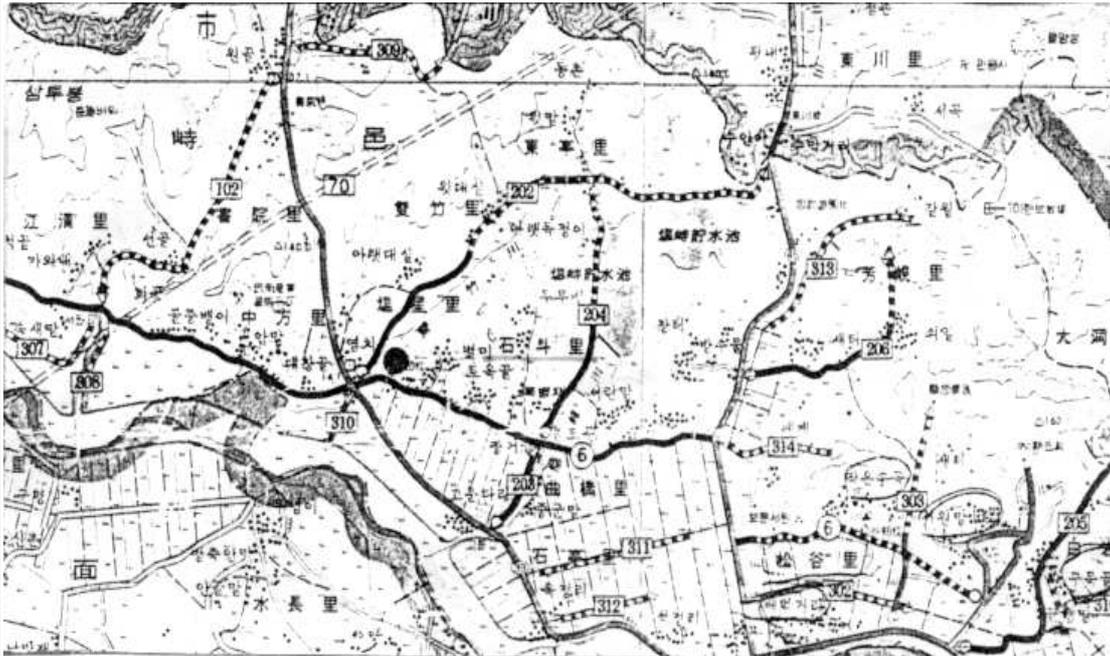


석두리·石斗里

석두리·石斗里

석두리는 엽티읍의 한 마을로 1리와 2리로 나뉜다. 석두 1리는 서릿말이라 부르고 2리는 두무실이라고 부른다. 석두리의 총 인구는 213명으로 남자가 103명, 여자가 110명으로 가구수는 총 79가구가 살고 있으며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석두리는 본래 아산군 금남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두미리, 석서리를 병합하여 석두리라 하여 아산군 엽티읍에 편입되었다.

<석두리 위치도>



☒ 서릿말, 두무실 마을

석두1리는 서릿말이라는 한 마을로 이루어 졌으며 서릿말 마을은 두무실 마을의 동쪽의 산어귀에 있는 마을로 산사이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서릿말이라 한다.

석두2리는 두무실 마을이 주된 마을이며, 두무실 마을은 서릿말 서북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은가마처럼 생긴 분지에 생긴 마을이라 하여 유래 되었으며, 특실 마을은 두무실 동북쪽에 있었던 마을로 골짜기 사이에 있어 특실이라고 유래 되었으며, 변하여 특실이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조사당시 석두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서릿말 마을은 위도 36-48-50, 경도 126-59-20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 소재지에서 6번 도로를 따라 1.56km 가다보면 204번 도로가 나오는데 그 도로를 따라 0.5km 정도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마을이다.

두무실 마을은 서릿말 마을을 지나 북쪽으로 가다보면 도로 옆 염치 저수지가 나오며 염치 저수지 맞은편에 위치한 마을이다.

2) 현황

서릿말 마을은 총 인구는 113명으로 남자 52명, 여자 61명이다. 가구수는 총 40가구로 농업 59%, 서비스업 41%에 종사하고 있다.

두무실 마을은 총 인구는 100명으로 남자 51명, 여자 49명이며, 호구수는 총 39호로 농업 80%, 기타 서비스업이 20%로 조사 되었다.

- 인구분포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서릿말 마을	113명	52명	61명
두무실 마을	100명	51명	49명

- 생 업

구 분	계	농 업	기타 서비스업
-----	---	-----	---------

마을명			
서릿말 마을	100%	59%	41%
두무실 마을	100%	80%	20%

서릿말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ha로 논 20ha, 밭 8ha로 나타나며, 농기구는 농기구를 적게 보유하고 있고,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두무실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9ha로 논 11ha, 밭 18ha로 밭이 많으며, 농기구는 경운기가 가장 많고, 문화시설은 마을회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서릿말 마을	28ha	20ha	8ha
두무실 마을	29ha	11ha	18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 문화시설
서릿말 마을	1개소	1개소	-
두무실 마을	-	-	-

서릿말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살펴보면 박씨, 이씨 각각 15%로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층으로 볼 때 50~60대가 가장 많다.

두무실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살펴보면 임씨 31%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연령층은 50~70대가 많은 것으로 보아 마을의 노령화를 보여준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임씨	김씨	이씨	박씨	기타성씨
서릿말 마을	40호	1호	1호	6호	6호	26호
두무실 마을	39호	12호	1호	2호	1호	23호

- 최고령자

서릿말 마을의 최고령자는 강씨 할머니로 85세이시며, 두무실 마을의 최고령자는 오복례 할머니로 현재 86세이시다.

3) 자연경관

서릿말 마을은 서릿말과 두무실은 도로를 경계로 나뉘어 졌으며, 두무실 동남쪽 산 어귀에 있는 큰 마을인 이곳은 예전에는 군사기지 였다고 한다. 전에는 옥골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수지에 잠겼다. 옥골은 군사용으로 사용하던 말이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

두무실 마을은 산속에 있는 마을로서 입구를 제외하곤 사방이 산이다. 마을 입구에서 오른쪽, 즉 동쪽의 산은 북병재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래는 임진왜란때 쳐들어 오는 일본인들을 막기 위해 우리 병사들이 북병을 해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마을 이름은 지금은 두무실이지만, 원래는 두무가 아니라 두모(머리두, 털모)라고 한다. 이 뜻은 머리에 털이 있는 짐승이 거쳐하는 곳을 나타내는 뜻이라 한다. 북병재의 반대편에는 범바위라는 범과 비슷하게 생긴 바위가 있었다. 옛날부터 호랑이가 이 마을을 보호해주고 모든 질병을 막아 준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호랑이가 마을 입구에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범바위를 특별히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다.

4) 마을 변천 과정

석두리는 본래 아산군 금남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두미리, 석서리를 병합하여 석두리라 하여 아산군 염치읍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서릿말 마을은 임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았으며, 11대까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을 형성년대는 서기 1650년경, 약 33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두무실 마을은 서릿말 마을과 마찬가지로 임씨가 처음 터를 잡았으며, 15대까지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을의 형성년대는 서기 1550년경 약 450년이 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6) 지 명

十 서릿말 마을의 지명

·서릿말(서린말): 두무실 동남쪽 산어귀에 있는 큰 마을

·욕골 : 서릿말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금은 저수지로 들어 갔으며, 전에 여우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여우골이라 했는데 변하여 욕골이라고 함.

·북명재 : 서릿말 북서쪽에 있는 산으로 임진왜란 때 북병이 시켰던 산이라 함.

十 두무실 마을의 지명

·두무실 : 서릿말 서북쪽 산어귀에 있는 큰 마을로 큰 가마처럼 생긴 분지에 형성된 마을.

·양대산 : 두무실 아래쪽에 있는 산.

·창고터 : 서릿말에 있는 이조 때 사창의 터.

·가혜저수지 : 석두리, 쌍죽리, 동정리, 음봉면 동천리를 끼고 있는 만수량 3,059천톤인 저수지

·범바위 : 두무실 서쪽에 있는 바위. 모양이 범과 같으며 또는 옛날에 범이 이곳에서 새끼를 쳤다 함. 호랑이가 이 마을을 보호해 주고 또 모든 질병을 막아 준다는 전설에 따라 범바위를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음.

·특실(툼실) : 두무실 동북쪽에 있었던 마을로 골짜기 사이에 있어 툼실이라고 유래 되었으며, 변하여 특실이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있음.

7) 전 설

十 범바위의 전설

염치면 석두리 두무실 서쪽에 있는 바위에 얽힌 이야기다. 옛날 옛날 어느 울창하고 깊숙한 산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어찌나 무섭고 포악한지 지나가는 길손이나 짐승을 해치기를 예사로 삼아 주위의 모든 짐승들은 해가 지면 즉시 돌아다니기를 멈추고 굴속에서 숨을 죽이고 생활했고, "으르렁"하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릴적 마다 가슴을 조이며 벌벌 떨어야만 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낮에도 산속에 들어가기를 꺼렸고 아이들은 함부로 나다니지 못하게 했다. 그날도 호랑이는 마치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으르렁 거리며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네 이놈!"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노기에 찬 목소리가 들려 왔다. 깜짝 놀란 호랑이가 뒤를 돌아보니 산신령님이 호랑이를 무섭게 쳐다보며 "네 이놈! 살생을 그리도 많이 하고 살아 남기를 바라느냐! 당장 천벌을 받으려다"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호랑이는 벌벌 떨며, "잘못했습니다. 신령님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산신령님은 이런 호랑이의 모습을 보고 잠시 생각한 후 "그럼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다시 한번 인간을 해쳐가는 용서하지 않겠다"하는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호랑이는 "휴우" 안도의 숨을 쉬었으나 그 앞으로 어느 한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한 호랑이는 농칠세라 그의 길을 막으며 입을 벌려 그를 삼켜 버렸다. 이때 산신령님의 호령이 "네 이놈! 두번 다시 않겠다더니 또 살생을 했다 말이나!" 순간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바위로 변해 버

렸다. 그 호랑이가 낳은 새끼들만은 그 범바위를 떠나지 않고 지켰으며 후손들도 계속 살았다고 한다.

十 죽마위 전설

예전에 서울로 가는 길목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곳 경치가 너무좋아 왕이나 관리들이 쉬어가는 곳이란 전설이 있다.

8) 전통놀이 및 집단적 집단행사

서릿말 마을은 전통놀이 행사는 없지만 부녀회, 친목회등의 형태를 띠며, 부녀회에서는 한달에 2,000원씩 1년간을 불입하여 관광을 다니기도 하고, 친목계에서는 애경사가 있을 때 도시로 이사한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취하여 모두 모여 돕는다는 한다.

두무실 마을은 매년 대동계를 12월 말에 대동계를 하고 있으며, 마을에 애경사나 마을에 관한 모든 것을 의논하는 자리가 된다.

9)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

10) 종교현황

서릿말 마을과 두무실 마을은 모두 종교단체가 전혀 없다.

11) 공장현황

서릿말 마을에는 두부 제조 공장인 삼일 식품과 냉동기 부품 공장인 한사기계가 있으며, 두무실 마을에는 도자기 공장인 팬시팝과 비닐 생산공장이 있다.

力삼일식품 : 석두 124, 종업원수 5명, 두부제조

力한사기계 : 석두 산 27-1, 조업원수 40명, 냉동기부품

力금성도자기 : 석두 219 도자기 91. 12. 31. 휴업

力삼성도자기 : 석두 246 도자기 93. 4. 27. 휴업

力동아산업 : 석두 280-1 스크린 인쇄업 94. 7. 23. 종업원 8명

12) 마을 특성

서릿말 마을은 마을 위에 산이 있고 마을 앞으로 가례실 이라는 넓은 들이 있으며 그 들과 마을 사이에 도로가 나 있으며, 마을 위쪽으로는 염티 저수지가 들어가 있으며 주로 벼농사를 많이 짓고 마을이 작은 만큼 서로 상부상조하는 정이 살아 있는 시골마을이다.

두무실 마을은 산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주로 마을을 중심으로 있는 논에 벼농사를 주로 하며, 밭농사도 약간씩하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며, 정이 넘치는 마을이다.